

since 1986

# SUNBO FAMILY

2011년 사업계획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vol. 92 2011년 9월 15일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홈페이지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261·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 만루홈런으로 스트레스까지 한방에!

### 1석2조의 가족친화경영 실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단합심을 키우기 위해 일과 후 여러 문화적 이벤트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1년 8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롯데와 SK경기를 단체로 관람하였다. 평소 직장생활로 소홀하기 쉬운 가정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최초로 진행된 이번 관람은 총무안전주관으로 희망자에 한해 야구관람 티켓 200장을 지급하여 임직원뿐만 아니라 직원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전원에게 김밥과 물을 지원했으며, 1루쪽을 지정석으로 하여 직원 및 직원가족 200여명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롯데 김주찬, 강민호가 잇달아 대포를 쏘아 올렸고 황재균이 만루 홈런을 만들어 내는 등 SK를 9대1로 크게 대파하여 그 기쁨이 배가되었다. 직원 및 가족들의 호응이 좋았던 야구경기 관람은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

지 약 4회 가량 더 실시 될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가족친화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기적 이벤트를 실천 할 예정이다.

1.금연 프로젝트-보건소에서 체크하여 특별관리대상 30명을 선정하여 금연 성공 시 그에 따른 부상도 있을 예정이다.

2.마라톤 대회-11월13일 희망자에 한해 다대포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이런 이벤트는 직원들이 함께 모여 애사심을 다지는 한편, 업무에서 벗어나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함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회사 선보다이내믹스(야구동호회)는 2009년 창단하여 15명으로 팀을 이루어 오다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현재는 48명의 선수들이 뛰고 있는 야구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선보다이내믹스는 가족들과 연계하여 폭 넓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니 열정 넘치는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



#### Inside SUNBO 회사소식

### 환경의 날 행사 전 직원과 함께 사업장 환경정화활동 펼쳐

#### Inside SUNBO 회사소식

### 최금식 선보공업(주)대표 사하문화원 초대 원장 취임



사하구 지역 문화예술의 메카 역할을 하게 될 사하문화원이 8월 31일 6시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마침내 첫발을 내디뎠다. 사단법인 형태의 사하문화원은 시 구비 1억9천여만원, 임원출연금과 회원회비 1억4천만원등 총 3억3천여만원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 장기비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이날 초대 사하문화원장에는 최금식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회장이 선임됐다.

최금식 초대 문화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하구는 타 지역에 비해 문화와 경제가 낙후됐다. 사하 문화원 설립을 계기로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서 사하구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적으로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최금식 대표이사의 사하문화원 원장취임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 지원에 힘써 왔던 우리 회사가 향후에는 지역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회사는 6일 아침7시, ‘환경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회사 임, 직원 및 관계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 우리와 함께 소통하다’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선보공업 최금식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하며 “환경의 날 행사가 우리의 자연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녹색성장의 의지를 다지는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행사의 의미를 더 강조했다.

이어 임,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전 사업장에 대한 정화활동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달 1,3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큰 규모의 행사를 계획 중이며, 주변 지역인 사하 해수욕장, 낙동강 하구둑에서의 지역구 환경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Inside SUNBO Interview



류동영 상무

미소짓는 법을 배우다

웃는 얼굴에서 그분의 철학이 보인다고 했다가. 우리 회사에 8월22일 정식 입사하신 류동영 상무님께 기분 좋게 웃는 법을 배우고 왔다. 대기업에서 40여 년을 근무해 오며 국내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는 분야에는 그가 항상 있었다.

그는 사업은 의욕만으로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직과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는 회사의 경영방침과 본인의 생각이 잘 맞아 우리 회사에 들어올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우리 회사의 현장은 예전보다 많이 향

상된 모습이라 기존의 일에 비해서 수준이 있는 편이라는 평이다. 그리고 “선보는 ‘선보Family’ 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며 직원들과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고 싶고, 함께 동거동락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영철 이사

“선보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회사에 8월16일 정식 입사하신 우직한 모습의 장영철 이사님. 대기업에서 34년 동안 근무하신 육상플랜트 공사관리 실무분야의 최고 베테랑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서 예산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품질로 적기에 납품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선보는 조선 및 해양 모듈 조립을 위한 상당한 수준의 공장설비와 중량물을 운송하기 좋은 부두 등 중견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편이다.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해양쪽 물량을 더욱 많이 수주할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회사의 명성을 높여 좋은 소문을 많이 내고 싶다”는 이사님의 자부심 어린 고백에서 우리 회사의 밝은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다.



김원구

HSE매니저

“선보공업의 목표와 나의 기량이 잘 맞아”

선 굵은 카리스마형 리더로 자리매김 해 오신 김원구(Perman Kim) HSE매니저님. 우리 회사에 8월22일 정식 입사하셨다.

국내 대기업(해양사업부 계약관리부소속)과 세계무대에서 수많은 해외Project를 원활히 추진한 경력의 소유자로 평가되어진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Clover Project HSE Manager로 당사의 HSE Manual과 Client의 HSE requirement를 Matching 시켜 해당공사의 “환경, 안전,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선보Family의 목표와 나의 기량이 잘 맞아 대표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선보에서 추진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임무를 맡아 해내고 싶다.”며 앞으로의 각오와 결심을 조심스럽게 엿볼 수 있었다.

Inside SUNBO 회사소식



WEB SCM 개발 선보 내에서 WEB SCM 버전을 최초로 개발

**Q 이번 개발로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나요?** 이번 개발로 기존 C/S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실시간 프로그램 수정 및 업데이트, 초기 설치 등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업무 진행과정에서 발생되거나 변경되는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이번 개발에 있어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개발전까지 SCM부분은 외주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회사만을 위한 SCM 개발진행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에서 독학으로 해야한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국엔 자체적 WEB SCM개발을 일궈내게 되었고 그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Q WEB SCM의 개발이 우리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요?** 그동안 CS버전을 사용하면서 업체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시간소모가 많았던 반면, 이번 개발로 인해 대외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단순화 되어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우리회사의 위상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WEB SCM개발로 우리 회사는 어느 때보다 전역 공급망을 운영함으로써 전역별 재고 수준, 물류 비용, 고객 만족 등의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협력사 SCM교육에 물심양면 도와 주신 자재조달부 직원들과 특히, 황지석 대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영어교육 실시  
당신의 잠자는 영어를 깨우세요!

요즘기업들은 사원의 외국어 교육에 사운을 걸 정도로 열성을 보이고 있다. 회사가 커질수록 또 국제화할수록 사원들이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인을 접촉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외국어 실력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이다. 이에 우리회사는 9월 2일부터 전액무료의 사내 영어교육을 실시, 사전레벨 테스트를 거쳐 등급별로 초급2class, 중급1class로 분류하여 이른 아침 6시30분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른 아침시간대라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상쾌한 새벽공기를

뚫고 100%의 출석률을 보이며 참석해 외국어교육의 필요성과 그 열의를 짐작케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원들도 “한 두가지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 앞을 다투어 외국어를 익히느라 열심이다. 이런 분위기를 앞세워 고급class도 개설할 예정이며, 글로벌시대에 맞춰 우리 회사는 외국어 실력을 정기적으로(주3개월) 테스트 해 승진, 해외과견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교육의지를 높일 예정이다.

Inside SUNBO 회사소식

대학원 진학

이수원 자재조달부 과장, 임훈균 해양설계부 대리  
부산대 일반대학원 / 기계부품 시스템전공



우리 회사는 희망자에 한해 평생교육을 지원, 무료대학원진학도 도움을 주고 있다. 2011무료입학의 기회를 얻게 된 두분을 만나 입학소감과 각오를 들어 보았다.

이수원 자재조달부 과장은 구매부에서 자재를 담당하다 보니 해양의 특성이나 재료의 발달에 따라 신소재 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미리 대비하고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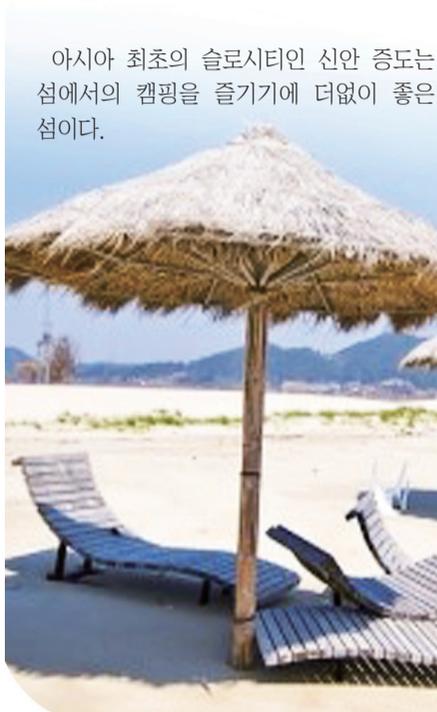
학 생활을 하면서 관련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다른 회사 임원들과 인맥도 많이 쌓고 싶다고 말했다. “되든 안되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대학원 생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이든 도전 해 보고 경험해 보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임훈균 대리는 우리 회사가 조선 사업에서 고부가가치의 플랜트 사업으로 전환 중에 있어 이에 새로운 트렌드가 주입되는 만큼 공부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 말했다. 그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해양설계와 도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후배와 신입양성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일과 공부에 있어 꾸준히 노력해 나를 성장시켜 보고 싶다.”고 말했다.

Life 추천여행지

## 텐트 속으로 밀려드는 파도소리

### 증도 우전해수욕장에서의 하룻밤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신안 증도는 섬에서의 캠핑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섬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널따란 갯벌과 은빛 해변, 해변 뒤로는 짙은 녹음의 해송숲이 펼쳐진다. 드넓은 염전에서 소금만들기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증도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은 두 곳.

우전해수욕장과 짱뽕어해수욕장이다. 여기에 야영장이 갖춰져 있어 텐트를 설치할수있다. 샤워장과 화장실도 갖춰져있는데다 솔숲 바로앞에

은빛 해변이 펼쳐져 있어 섬에서 하룻밤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짱뽕어다가 있는 짱뽕어해수욕장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샤워장과

잔디광장 뒷편으로 몽골텐트촌이 마련되어 있고 텐트도 설치할 수 있다. 짱뽕어해수욕장에는 짚 파라솔과 선베드가 줄지어 서 있는데 마치 동남아의 유명 휴양지에 온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증도의 또 다른 명소는 태평염전이다. 우리나라 단일염전 가운데 가장 큰 4.6km<sup>2</sup>의 규모를 자랑한다. 연간 1만6000톤의 소금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염전 주변에는 소금박물관, 염전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많다. 또한 장혁과 공효진이 나왔던 드라마 <고맙습니다> 촬영지로 유명해진 화도도 가볼 만하다.

교통편: 서해안고속도로 무안IC → 무안삼거리 → 무안현경 → 지도읍 → 증도대교 → 우전해수욕장  
(소요시간: 목포 → 증도 1시간)  
☎ 연락처 : 061)271-7619



Life 문화소식

## 여름 사진 공모전 결과발표

### 배관반 신승훈 반장의 “할머니와 손주 손녀”가 당선

전 직원들의 열띤 호응 속에서 9월7일 여름 사진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진전은 역대 최대인 총 35명, 100여점 이상의 실력있는 작품들이 대거 출연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 대상 신승훈작 <할머니와 손주손녀>

특히 이번 작품 중 대상작은 최종 심사에서 채점하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작품들의 경합 끝에 재투표를 통해 배관반 “신승훈”반장님의 “할머니와 손주 손녀”가 당선되었다.

출품작 중 대상 1명, 은상 2명, 동상 5명을 선정하여 각각 20만원 상당의 상품, 10만원 상당의 상품, 그리고 5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된다. 출품작 중 당선된 총 8점의 작품은 A3액자에 출력되어 한 달간 전시된 후 당선자에게 증정되어 그 기쁨을 더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번 응모에 참여 해 주신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응모작 선별에 수고한 “사진 동호회”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은상

(좌)손정락 <물카>  
(우)이수원 <엄마랑>



동상

(좌로부터) 김영호  
이기환  
이정훈



동상

(좌로부터) 신성인  
최 철



Inside SUNBO 우수협력업체



무지개 공단에서 우리 회사와 동거동락을 함께해 온 영인산업 협력사를 찾아 나섰다. 해맑게 웃으면서 회사입구까지 마중 나오신 지수용 사장의 얼굴엔 활기가 넘친다. 선보와 인연을 맺은 지는 8년, 조선 철 의장(seat)을 만들어 우리 회사에

## 오랫동안 알고 지내오던 친구처럼 “영인산업”

양질의 제품을 공급 하고있다. “젊었을 때 일을 더 해보고 싶어 사원에서 사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너털웃음을 지어 보이는 지수용 대표에게 들을 수 있었던 선보의 큰 장점은 기존 물량확보가 확실하다는 점이다.

또한 계약 중 외주업체, 하청업체라 해서 차등을 주는 일이 없으며, 결제일이 정확하다는 점에서 선보에게 배울 점이 많고, 앞으로도 협력사로서 영원한 친구로 남고 싶어 신뢰와 믿음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회사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 긴급한 부품조달이 가능하다는 큰 이점을 지닌 영인산업. 힘든 점이 있다면 아

직 완전 자동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함께해 온 사원들로 이루어져 그 원동력으로 자동화 못지않게 손발이 아주 잘 맞다고 한다. 그 결과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납기일을 정확히 지킬 수 밖에 없다며 이곳 현장에서 일하는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 같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수용 대표는 “지금으로도 좋으나 앞으로도 선보와 함께 더 나은 상생, 공생 관계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인산업을 더 발전시켜 선보공업체처럼 큰 회사를 운영 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

며 앞으로의 큰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오랫동안 믿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영인산업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했다. 그의 미소에서 선보와 상생하는 행복한 협력사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부산기계공고

**실습생들**

산학협력형 취업 중심의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아짐에 따라, 무의미한 대학진학보다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특성화고만의 정체성이 확립돼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회사에서도 부산의 대표적

**직장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좋은 실습현장**

특성화 고등학교인 부산기계공고 학생들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현장을 방문하여 실습생들을 만나보았다.

**Q.현장분위기는 어떤가요?**

같이 일하는 분들과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 처음엔 걱정을 했지만, 형들이 가족처럼 편하게 대해주고 위험한 작업들은 저희가 다치지 않게 배려를 해주는 면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Q.학교에서 배운 실습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배우는 실습과정과는 다소 큰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점을 현장에서 느

끼고 배워 나가는 중입니다. 선보공업이라는 현장에 와서 몸소 실천해보니 직장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내가 나아가 갈 방향을 설계해 볼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Q.앞으로의 목표와 이후 실습을 나오게 될 후배들에게 한마디!**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학교과정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부지런함만 있으면 누구나 현장적응은 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듯이 어떤 일이든 항상 도전하는 마음을 갖고 절대안전을 지키며 임했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Q. 대표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저의 목표는 부사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특례를 받으며 야간대학교를 다니면

서 젊은 패기로 일과 공부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김우동)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다대공장**

- 경영지원 황수영(9/28)
- 자재조달 이수원(음8/29)
- 1공장 강신규(9/01), 이은식(9/08), 오남기(9/11), 박희순(음8/14), 안종록(음8/26)
- 2공장 김 용(9/02), 김문철(9/06), 김희찬(9/27), 전철민(9/29)
- 3공장 신경섭(9/17)

**구평공장**

- 자재운영 이태욱(9/17)
- 구평공장 정정배(8/06), 정욱현(8/10)공대성(8/25), 구명주(8/25)백영진(8/31), 감병철(9/02), 이재문(9/02), 원하박(9/05), 강화진(9/05), 성정모(9/12)

**영도공장**

- 품질보증 박우근(9/22)



**입사기념일**

**다대공장**

- 설계1팀 윤우희(9/18)
- 설계3팀 오영석(9/18), 고중현(9/27), 이성준(9/28)
- 고객지원 조현상(9/23)
- 1공장 권성현(9/01), 허 현(9/07), 이철현(9/07), 김수환(9/13)정귀렬(9/17), 손성훈(9/18)배영환(9/18), 최진호(9/18)박철우(9/20), 최영근(9/24), 최병모(9/28)
- 3공장 김승우(9/24), 이준우(9/27)

**구평공장**

- 자재조달 이동준(9/21)
- 생산관리 김유미(9/26)

**영도공장**

- 고객지원 최성호(9/14)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영도공장

**이재근 단장**

**Q 이번달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지 3년정도 되

**자기 직업을 좋아해야 행복해 질 수 있다**

었는데 적은 경력에도 이렇게 다른 동료에게 칭찬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인터뷰가 저에게는 얼떨떨하고 쑥스럽기만 하네요.

**Q 선보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현장에서 용접을 담당하고 있고, 특별하게 힘든 점 없이 수월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용접일을 하기 전에 일반 기계사에서 일하다 선보로 오게 되었는데 현장근무라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회사는 조선소와 비슷한 작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아늑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Q 밖에서 하는 작업이신데 많이 힘들진 않아요?**

현재 하는 일이니까 가능하면 즐기면서, 웃으면서 하자는 마음가짐입니다. 왜 그

런 말 있잖아요, 자기직업을 좋아해야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말. 일을 지나치게 하지않고 신념을 가지고 일하려 합니다. 평생하자는 의지 보단 순간을 즐기면서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Q 그렇다면 일 외에 취미가 있으신지요?**

자전거 타는것도 좋아하고 사진(필름카메라)찍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틈틈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에 사진 동호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가입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어 동호회에 가입해서 모임에도 참석하고 선보인들과 함께 출사도 나가 좋은 작품들을 남겨 보고 싶습니다.

칭찬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Run SUNBO Run **틀린 그림 찾기 - 5곳을 찾아 주세요!**

이달의 명화 - 빈센트 반 고흐의 "아를르의 포룸 광장의 카페 테라스"

